

직업계고 현장실습, 두 마리 토끼 잡는다

학습중심 방안 적용... 학습권·안전 보장 최우선

전북교육청이 직업계고 학생들의 현장실습 운영에 있어 '학습권 보장'과 '안전 확보'를 최우선에 두고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올해부터 현장실습 방향이 현장실습과 취업을 분리한 '학습중심 현장실습'으로 변경되면서 전북형 현장실습 방안을 마련, 운영하고 있다.

가장 큰 특징은 현장실습위원회가 심의를 통해 선정한 '선도기업'에서

만 현장실습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이를 위해 도교육청은 지난 8월부터 학부모·시민단체 등 외부위원 11명과 내부위원 4명이 참여하는 현장실습위원회를 운영해 전국 188개 기업을 서면심사 및 현장실사 한 결과 총 173곳을 선도기업으로 지정했다.

학부모 등이 직접 기업체를 둘러보면서 학생들이 안전하게 현장실습에 참여할 수 있는지를 파악한 것이다.

또 현장실습 기간은 1주일 이상 4주일 이내로 제한하고, 취업연계는 동계 방학 이후 또는 11월 1일 이후에 가능토록 했다. 이는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한 차원이다.

특히 임금을 목적으로 한 근로를 금지하는 대신 현장실습 참여 학생에게는 월 30만원의 지원비를 제공기로 했다.

현장실습 기업에도 학생을 지도하는 현장실습 지도담당자를 반드시 배정하도록 하고, 기업 담당자에게는 20만원의 수당을 지급기로 했다.

이와 함께 기업과 학교는 공동으로 현장실습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고, 현장실습표준협약이 체결되지 않은 기업에서의 현장실습은 금지토록 했다.

변완섭 미래인재과장은 "전북교육청은 직업계고 학생들이 안정적이고 보다 안전한 기업에서 현장실습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에 나섰다"면서 "직업계고 학생들이 산업 수요에 맞춰 양질의 교육을 받고 원하는 곳에 취업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민주시민교육 위한 열띤 논의

도교육청, 학생·학부모·교사 등 인성교육 공청회 열어

전북교육청은 19일 교육공동체에 대해 민주시민교육의 길을 묻는 민주시민교육 대토론회를 열었다. 이 자리는 정해진 패널없이 누구나 같은 토론의 주인공으로 참여하는 자리로 2019년도 민주시민교육 계획 수립에 다양한 교육공동체의 의견을 듣고 민주시민적 관점을 반영하기 위한 정책숙의의 과정이다.

이날 열린 공청회에는 학생, 학부모, 교사,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등 교육주체 140명이 참여해 3시간 동안 민주시민교육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열띤 논의를 펼쳤다.

참석자들은 먼저 사전 설문조사를 통해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생각을 나눈 뒤, '민주시민교육은 무엇을 길러주는 교육인가,'

'그렇다면, 학교민주시민교육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가'에 대해 2차에 걸쳐 깊이 있는 토론을 진행했다.

이어 인성, 인권, 자치, 평화통일교육을 담당하는 장학사들이 '민주시민교육을 위한 교육청 이야기'로 토론회에 함께 참여하여 내년도 민주시민교육이라는 큰 틀에서 함께 지원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펼쳤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육주체가 함께 하는 토론형 공청회를 통해 다양한 교육적 의견을 들을 것"이라면서 "교육기본법과 우리 교육청 교육 지표에 의한 담의적 과제인 민주시민교육의 토대를 민주적인 방식으로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전북중소벤처리더스포럼 아카데미 최고경영자과정 제1기 수료식이 18일 전주대 리사이틀홀에서 열렸다.

4차 산업혁명시대 선도자 양성에 기여

전주대, 전북중소벤처리더스포럼 최고경영자과정 수료식 성료

전주대 LINC+사업단(단장 주승)과 (사)벤처기업협회 전북지회(회장 이인호)가 공동주관하는 전북중소벤처리더스포럼 아카데미 최고경영자과정 제1기 수료식이 전주대 리사이틀홀에서 열렸다. 중소벤처리더스포럼 최고경영자과정은 벤처가 살아나 경제가 산다 라는 벤처협회 슬로건의 의미를 담아 전북지역 중소벤처기업의 활성화를 위해 추진됐다.

지난 9월 입학한 45명의 기관 및 중

소벤처기업 대표들은 15주 동안 매주 화요일, 4차 산업혁명시대 선도를 위한 역량강화교육 및 명사특강, 창조경영교육, 디지털마케팅 교육 등 다양한 교육을 이수했다.

특히, 한국SW/ICT 총연합회 조봉연 회장, 한국생산성본부 노규성 회장, 카이스트 이경상 교수, 홍콩 슈팅 갤러리 순정 대표 등 국내 최고 전문가들이 명사로 나서며 급격하게 변화하는 시장의 트렌드를 정확히 짚어내고

수강생들의 전문성을 향상시켰다.

수강생들은 6주간 한국생산성본부에서 설계된 디지털마케팅 전문과정도 이수하며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기본 소양을 갖추게 됐다.

전북중소벤처리더스포럼은 지난 10월 25일에는 세계한인무역협회 유럽지회장 일행 30명을 전주대로 초청해 회원사와의 무역 상담을 중개하기도 하며 향후 유럽 진출을 위한 교두보를 마련하는 등 지역의 중소벤처기업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한편 이날 수료식에서 제1기 수료생

중심으로 구성된 원우회(회장 최혁중)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할 미래 인재 육성과 전주대 발전을 위한 발전기금 300만원을 전달했다.

최혁중 원우회장은 "전주대의 지역중소벤처기업 발전을 위한 노력에 감사하며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할 우수한 인재양성에 힘써 달라"는 당부를 전했다.

전주대 이호인 총장은 "벤처기업이 지역경제를 이끌어가는 중심점에서 기업의 리더들이 다함께 다가오는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며, "중소벤처분야와 지역산업이 함께 발전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장은성 기자

전북대, 지역 축산 전문기업과 산학협력 '맞춘'

우수 암소 수정란 생산 기술 협력... 한우 개량 가속화

전북대학교 동물분자유전육종사업단(단장 이화교)이 연구 성과 활용을 위한 산학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사업단은 18일 익산에 위치한 서동한우영농조합법인과 한우 개량 기술 협력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산학협

력 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사업단은 서동한우영농조합법인으로부터 연간 400두 이상의 혈통과 유전체정보를 분석하여 유전 능력을 평가하고, 선정된 우수한 암소에게는 사업단이 갖고 있는 번식기술을 투입할 예정이다. 서동한우영농조합법인은 3년간 사업단으로부터 우수 수정

란 생산 등 여러 번식기술에 대한 지속적인 컨설팅을 받으며 한우 개량을 가속화 하겠다고 밝혔다.

이화교 단장은 "이번 MOU를 통해 고능력 암소 축군을 늘리고 번식기술을 더욱 고도화하여 향후 좋은 수정란이 산업계에 보급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임실교육지원청, 교육계획 수립 정책 토론회 개최

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정나영)은 19일 대회의실에서 관내 유·초·중·고 학교 학생, 학부모, 교원, 교육지원청 관계자 등 9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9 임실교육계획 수립을 위한 교육정책 집중토론회'를 실시했다.

이날 행사는 지난 6월에 실시한 '임실 교육공감 대토론회' 토론 결과중에서 집중토론이 필요한 주제 7개를 추출하여 내용을 심화하고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로 진행되었다.

참석한 학생, 학부모, 교원들은 '교

사의 성장', '학생의 성장', '학교의 공동성장', '문화·예술교육 상상하기', '임실교육 되돌아보기' 등의 주제에 대하여 자유롭게 생각을 나누고, 자신의 생각을 더하며, 함께 나아가는 과정을 90분 동안 이어갔다.

정나영 교육장은 임실교육지원청이 이날 나온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학교를 더욱 내실있게 지원할 것을 약속하며 이런 기회를 통해 임실교육 가족이 지역의 교육발전을 위해 함께 힘을 모아가지고 제안했다. /장은성 기자

전북기계공고, 세계 로봇올림픽대회 동상수상

제20회 로봇올림픽대회 세계대회에서 전북기계공고가 동메달 수상해 3년 연속 입상을 하는 기염을 토했다.

이번 대회는 14~19일까지 필리핀에서 12개국 800여명이 참석해 기량을 겨뤘다.

전북기계공고 로봇자동화 전공동아리(휴먼노이드)에서 활동하는 이예도, 최우진, 공승민, 전민건, 진민석, 문동주, 김태환, 최영욱 이상 8명 (지도교사 진양우)은 지난 8월 대구에서 열린 세계로봇올림픽대회 한국대회에 참가 금



은, 동상을 수상해 출전권을 부여받아 필리핀에서 열린 세계대회에 출전했다. /장은성 기자

제11대 전주시의회

“시민을 행복하게 하는 전주시의회를 만들겠습니다”

-시민과 소통하는 열린 의회 -공부하고 연구하는 혁신 의회 -비전을 제시하고 실현하는 실천 의회



<전주시의회 본회의>



<전주시의회 지방의회 체험교실(230-3731)>

시민을 행복하게 하는
전주시의회
시민여러분의 방문을 환영합니다.

전주시의회

http://council.jeonju.go.kr

(의정팀장: 230-3710, 의사팀장: 230-3720, 홍보팀장: 230-3730)

<방청안내 230-3713>

